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월 16일



불교와 인간소의

과거 농본사회와 달리 산업사회로의 발전은 전면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은 생산과 이득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있으며,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고유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기계화의 촉진과 자동화, 그리고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정보화와 사이버화는 인간소의현상을 초래했다. 인간은 기계의 부품처럼 전락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심화와 발전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엮어내는 인간성 전체와 전체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을 대상화시키는 관계다. 대상화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재물과 재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인간이 된다. 이렇게 대상화 된 인간은 상품으로서 임금에 의해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게 되며, 그로인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체제 아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본래적인 삶의 환희를 느낄 수 없기에 노동 자체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동 자체가 자신의 것이 아닌 자본가의 것이요 자본가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사이버화로 인간 소외현상 심화 나보다 남 위하는 마음 가져야 모두 행복

그러나 돌이켜 본다면 이러한 인간소의의 사회적 현상은 자연이 인간들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며, 신의 선물도 아니다. 바로 인간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동시에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이들의 사회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인간소의가 근원적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생성, 발전해 가는 사회현상이 인간소의를 부추기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현대자본주의의 사회현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은 본래적으로 혼자요 단독자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사회라는 말이 성립됨과 동시에 역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연기적 관계라 말한다. 인간과 인간이 전연격적으로 교류할 수는 없지만 인간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단독자로서의 의식 보다는 사회연대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혼자만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현실은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려고 말한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이미 다른 사람,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형제나 일가친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친구요 형제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시실 때 한 바라문이 찾아와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이상은 <잡아함경> 제4권에 나오는 내용이다. 물론 괴를 나는 부모형제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하고, 입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 역시 소중한 사람들이란 의미이다. 망망한 인생의 바다에서 고통과 소외감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음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에 율사기라라는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대답을

한다. 선지식이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인용한 가족도 바로 선지식인 것이다. 동시에 그들이 있기에 우리들이 소외감을 벗어날 지고 활달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중일아함경> 제34 율일품에 나오는 가르침도 귀감이 된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경하고 섬길만한 한 일곱 종류의 사람을 거론하고 있다. 첫째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는 남을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셋째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넷째는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여섯째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곱째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섬길만한 일곱 종류의 인간상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 모두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것없이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인 인간소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대원스님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두 개가 서로 의지하여/비로소 사람 인자를 이루네/ 입속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부드러운 침이 있어서/ 백가지 잡편 것을 모조리 부수어 먹고 한구멍으로 황금을 배출함이라.

어느 누가 '인생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인생을 알려면, 부처님처럼 6년 고행, 참선을 통해서 자각(自覺)해야만 합니다. 역대 성인이나 조사스님께서도 인생을 알기 위해 생명을 걸고 노력한 결과 깨달은 뒤에야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2인연법을 깨달았고,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인연이 모여 하나의 육신을 이루었는데, 이 육신을 받쳐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지혜가 있고 없음을 이룹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좀 높은 차원에 있지만, 본성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고 어둔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무엇 때문에 사는 지를 물으면, 왜 사는지를 잘 모르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승가의 출가자도 자각하고 개선행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승가의 신도들은 육망을 이루기 위해 부처님께 요구하는 기복적인 신행이 너무 많고, 승단의 출가자들은 부귀와 공명을 헌신처럼 버려라 했거늘 재물과 권력, 명예에 치중함이 능후합니다. 이 상은 어려서 즐거하여 대쳐-비구 정화당시에 일부 참여했지만, 정화의 이념은 도퇴되고 말았습니다. 눈을 다시 뜨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중생은 살기 위해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 합니다. 어떠한 모양을 보여주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찰성지에 하루 수십만 관광객이 들어와도 제대로 포교하나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종단 내부와 갈등이 끊이지 않으니 언제 적나라(赤爛爛)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런지 아득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알기 위해 육년고행 끝에 깨달으시고 최초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다.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의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을 집착해서 능히 깨달아 증득하지 못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인생은 색수상행식의 인연에 의한 존재라고 설교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는 것도 없고 중생도 없고 죽는 것도 또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 남기려나”

없나니, 만일 이렇게 그 모양을 알면 그는 곧 위없는 사람이 되리.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마음 다 비추고, 두려움 다 없애고 깊은 법 연설하네. 시방(十方)의 한량없는 일체 중생들 모든 바른 법의 문(門)에서 모두 편안히 머물게 하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옷을 훌훌 벗어 버리고 새로운 참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까.



◇대원스님은 "선지식 밑에서 철저한 경책과 정경을 받으며 공부해야 다듬어진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당부한다.

속답에 어른이 입맛을 다시면 아이들이 자꾸 무엇을 먹고 냐고 물어서 아이들 보는 데서는 입맛 다시기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질이 중요해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의식 또한 정보다 많이 해박해진 것

청정한 마음 밖으로 잘쓰면 참부처 탈속한 사람은 꾸미지 않아도 흰칠

입니다. 인생 역시 선방 좌복을 지키고 있을 때는 세상이 바로 가는 건지 모로 가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혼자 화두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몰입 안주하면 정말 편안합니다. 그러나 십자거리에 나와 많은 사람과 만나고 대담을 해보면 정말 생각도 못했던 회귀한 일도 많고 형형색색으로 각자 다른 많은 모양을 보게 되는데, 개중에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질 때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잠잘 때 꿈을 꾸면 서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계속 꿈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꿈 인들을 바로 알면 잠에서 즉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연속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반면에 개중에는 제법 부처님 말씀과 조사스님의 공안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웅만한 스님보다도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주먹을 들고 함(喝)을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2. 무명 수재. 3. 모시론. 4. 면 래주사. 5. 장삼. 6. 신도복. 7. 셔츠.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간(肝)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물에서 재워낸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민 잎대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깨끗 시킨다. 다슬기 10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끓입니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영기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대 상: 스님, 법사, 절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02)556-5590, 5542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깨끗하게 法輪大法(파룬궁) 무료전수 안내. 물질적 삶에는 풍요롭고 풍족한 것 같지만 도덕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날로 타락하고 처져 가고 있습니다. 왜 法輪大法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왜 法輪大法 수련생이 짧은시간에 60개국에 약 1억명이상이 수련하고 있는지 왜 法輪大法를 수련하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깨끗해지는지 문의: 019-201-9532



◇5일 저녁 8시30분, 철야 참선정진에 앞서 <대주선사어록>을 강의하는 대원스님.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흥내를 내는 분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산승이 "망상이라고도 하지 말고, 진어(眞我)라고도 말고, 말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없어진 곳에 이르러 어떠한 것이 그대의 본래 얼굴인가" 하고 물으면 활을 하고 주먹을 들어 보이거나,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다"라는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합니다. 이럴 때 산승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라고 꾸짖어 경책(警策)합니다. 이것은 다 고인(古人)이 입맛 대신 것을 흥내 내는 짓거리이며 그림자를 따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과 조사가 입맛을 대신 그 의지를 바로 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산승이 경책하면 수긍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다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부에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산승도 공언히 법문이라고 신문에 내는 것이 도리어 큰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입맛을 대신 것에 공언히 시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입맛을 다스기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산방에서 공부하거나 염불, 독경, 주례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마음을 훌륭하게 쓰는 사람은 드문 형편입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실제로 훌륭한 마음을 쓴다면 이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그것은 죽은 참선입니다.

앞을봐도 색이없고

뒤를봐도 뿌리가 없으며

산봉우리 청풍이 바다와 연해...

묵은 과일보다 새로 나온 과일이 더 신선한 것처럼 잘못된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마음이니 가히 뒤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밖으로 잘 드러내 이 것이 본래의 참 부처(本來清淨心 不可而修證 但用善此心 即是 如來佛)'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면 마음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바로 깨달아 증득하면 다시는 속지 않는 사람이 되며, 마치 공을 끌리는 사람처럼 하며, 맹수를 잘 다루는 조련사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을 유지해가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합니다. 맑은 바람이 언제 아를 담고 추한 것을 가려서 불어주던가요. 맑은 달이 언제 선악을 가려서 비추어 주던가요. 맑은 물 역시 그러합니다. 깨끗해 티가 맑고 탁속한 사람은 꾸미지 않아도 환절하게 드러납니다. 밖으로 마음쓰는 것이 마치 청풍명월(淸風明月)과 같이 차별 없이 하늘과 땅을 덮습니다. 이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생산적이고 살아있는 대용(大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입맛을 대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승에서 지게 목발 두드리며 노래하는 나뭇꾼과 시장 십자거리에서 옛가락 치며 가위 들고 춤추는 옛장수가 더 멋집니다. 누가 나에게 불법의 큰 뜻을 묻는다면 산승은 '오색구름이 상서롭다'고 답하겠습니니다. '어떠한 것이 산봉우리와 십자거리의 소식인가' 라고 묻는다면 '앞을 봐도 색이 없고 뒤를 봐도 뿌리가 없으며 산봉우리의 청풍(淸風)이 바다와 연해 있다'고



◇언제나 자상하게 출·재가선객들의 공부자리를 점검해 주는 대원스님.

5일 밤, 공주 계룡산 장군봉 아래 위치한 학림사(조실 대원스님) 오동시민선원. 30여 불자들이 참선 철야정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대원스님의 선어록 강의와 철야참선법회를 열고 있는 충남 공주 학림사 시민선원은 일반 선원과 다른 점이 많다. 대부분의 시민선원들이 구급 재가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자가 본 대원 큰스님

움직이는 반면, 학림사는 조실 대원스님이 직접 입방자들의 공부자리를 점검하고 있다. 덕분에 참선공부를 하면서도 제대로 점검을 받아 보지 못한 대부분의 출·재가 선객들은 자신의 공부자리를 점검 받을 수 있는 드문

20세에 하동산 스님에게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그 뒤 오대산 상원사, 도봉산 망월사, 문경 김룡사, 법안사, 해인사, 송광사, 홍도사 극락암 등 제 방선원에서 안거하면서 효봉, 풍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입승 및 섣덕 소임을 맡아 공부부를 겸책 받으며 오로지 선수행으로만 일관했다.

1973년 고암 스님이 해인총림방장으로 머물 때,

'자유로운 공부·실참·현실속 회향' 강조

기회를 열고 있다. 이러한 가풍은 자유로운 공부와 그에 걸맞는 실참, 현실 속의 회향을 강조하는 대원스님의 가르침에 기인한다.

194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대원스님은 1957년 16세 되던 해에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였다. 남장사에서 당대 선지식인 윤고암 스님을 은사로,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하였으며

고암스님의 "백수상두(柏樹上頭에서 수방정일보(手放進一步)하야사 시지종차(始從此로) 출격대장부(出格大丈夫)라."는 말에 홀연히 깨우쳐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지어바치고 전법계를 받았다.

"홀연히 짓나무머리에서 손놓고 한 걸음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확연히 의심공자 늙아 무너졌네/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 새로운데/ 늙름이 비로자나 이마 위에서 활보함이다."



지록스님의 스님이야기

인암스님(下)

"공부 좀 한 스님이구먼!" 이 말이 재미가 있다. 인암스님의 경험담에서 나온 말이다.

송광사 강당(講堂)의 종업식(終業式)이 있던 날 전이었다. 확인 스님과 사중 노스님이 자리를 같이 하며 다과를 나누는 자리였다. 사중 스님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노스님의 소참법문을 부담없이 듣는 시간이었다.

해청당 공양방에는 다과회 준비가 무르익었고 시간이 흐르자 일부 노스님네는 자기 뒷방 처소로 하나 둘 떠났다. 인암스님만 마지막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스님, 공부하실 때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학인들이 청하자 스님이 입을 떼었다.

"뭘, 공부한 게 있어가지..."

그런 서투로 구수한 스님의 이야기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배꼽을 잡고 웃지 않는 스님들이

"하하, 하하하." 다행히 다른 큰스님들이 안 계셔서 문제가 없었다. 자칫하다가는 총림에서 말이 나오면 난처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울사 스님이 알면 큰 문제다. 대중이 눈물이 나올 지경으로 크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큰방 문이 열렸다. 웃음소리가 커지자, 큰방 앞을 지나가던 한 노스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다. 큰방 안을 둘러보고 불청객 노스님을 의아해 하신다.

".....?" 내가 말했다.

"스님, 앉으십시오. 인암 노스님께서 지금 초파일 법문을 해주고 계세요."

"아, 그래? 초파일 법문이 그렇게 재미있는 법문인가?"

노스님은 그냥 나갔고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그 비구니 스님은 양쪽 어깨를 만져도 가만히 있었다. 이때 스님이 손을 떼면서 비구니 스님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공부 좀 한 스님이구먼!" 여기서 더욱 웃음소리가 높아졌다.

"하하, 하하하." 모두가 너무 솔직하고 구수한 스님의 말씀처럼



그림·문병성

없었다. "그 날은 초파일 저녁이었지. 나는 소임이 원주였고." 스님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그때, 대부분 스님들은 대웅전 앞마당으로 나가서 후원이 텅 비어 있었다. 초저녁에 연등에 불을 켜고 밤이 깊어지면 제등 행렬로 마감을 한다. 불자들이 역시 연등 행사에 동참하여 후원은 한치 하기도 없었다.

원주는 후원의 주인이란 뜻이다. 원주인 스님은 후원에 남아서 여기저기 야궁이 화제 조심도 할 겸 객실을 빙 둘러보고 다니는 중이었다.

마루 끝에 한 비구니 수좌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혼자 회두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원주가 가도 끄떡 않고 앉아서 허리를 펴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옹기였다.

출연 스님은 비구니의 양쪽 어깨를 만졌다.

이 대목에 와서 큰방 대중이 박장 대소하였다.

솔직·구수한 말씀씨 최종 압도

수행중 비화 공개... '밤의 법문'

에 반하였다.

"공부 좀 한 스님이구먼!" 마치 큰스님이 섣부 수좌 공부를 점검할 때 쓰는 말부였다.

인암 스님은 그 외에도 비화(秘話)를 많이 들려 주었다. 다른 스님의 이야기가 대낮의 법문이라면 인암 스님의 이야기는 밤의 법문이다.

잠점 더 솔직해지는 것이 노인의 모습인가. 스님은 과거 허물을 지어 참회한 일들도 들려 주었다.

그때는 절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다. 어두컴컴한 큰 방 안에서 밤 9시까지 경을 펴고 읽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조계산에 자청해서 하루 이틀 동안 산강(山峯)이 되어 산 중턱에서 지내기를 좋아하였다. 절에서 산까지 밥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서 더욱 좋았다. 산을 지키는 게 좋단기보다는 어두운 방 안에서 경을 읽는 게 지루한 탓이다. 한번은 산에서 내려가기 싫어서 피를 부었다. 살그머니 불을 놓아서 스스로 끄고 보고를 하였다.

"스님, 아직 내려갈 때가 아니구먼요." 절에서 승낙이 떨어졌다.

"그때, 하루 더 지내거라. 산불이 재발되면 안 된다.

■ 송광사

당 노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다른 환스님에는 시대의 정황을 반영한듯 제법 오래되어 주는 힘이 있거나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제법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늘게 속쓰는 증상이 다량 불관산의 당대시물 개선시켜주는 공백한 작용으로 원천적 원인이 제거 될 수 있도록 제법 불관산이 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고통받던 열악한 신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열악한신체를 조장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양한 당뇨 약제와 함께 복용할 수 있는 **다운 밸런스 95 cap X 3월 1개월 130,000원**

다양한 당뇨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배양, 비만증, 무릎, 제라증상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질조금
- 피로를 없애고 치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잘,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알, 편두통, 고혈압

조원제약클라이프 Co.
(주)빈도제약(주)수신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 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심인병)을 유발시킴.
-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장막폐쇄증 등
- ◆ 혈전용해 효소 (나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성 특수 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 국제 혈전 용해 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61-811-3938
(약식행심)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험도량

픽미슈 예언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후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미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세번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미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어떤 여승을 바람을 잡아치고 뭉클을 두들기며 서을 시내 지 하할였다 내렸다. 다시 타고 더울 것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미도를 1년에 한 차례를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하였다.

출가 후 출가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언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험하고 달미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미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대 보급하면 이 달미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미도를 소중하게 되었지요." 서울 시내에다 무료로 일반 여침의 달미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미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계 위기 때에는 안양의 000파르를 지어 놓고 반양을 뜻해 부도 직전에 이룬 수월의 어느 견성회는 범상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미도를 걸어 놓고 반양을 시작했는데 반세대가 기억을 재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병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 서 제자적인 그림공부를 하여서 남마다 달미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택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미산사의 원력으로 아랍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남마다, 남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보현스님 합장